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4. 16.(화) 06:00 < 4.16.(화) 석간 > 배포 2024. 4. 15.(월)

미국 보잉사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인력 확대, 항공 분야 공급망 협력 등 추진

- 보잉 BR&T(연구개발) 부문 총괄책임자 방한 계기 협력 고도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4.16.(화)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Boeing)사 BR&T*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한국과 보잉 간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 Boeing Research & Technology : 세계 12개(미국 5개 센터와 한국 BKETC 포함) 센터 운영, 연구원 4,800명, 연간 연구비 약 40억 달러, AI, 사이버보안, 통신, 자율비행 등의 개발 수행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 시스템**'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납품)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대형 민항기 스마트 캐빈 개발 사업('20~'24년, 118억원)」, **「민간 항공기 건전성(health) 진단용 AI 시스템 개발 사업('22~'25년, 280억원)」

보잉 측은 2019년 한국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 설립하여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R&D)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계획을 설명하였다.

* Boeing Korea Engineering & Technology Center : 현재 국내 110여명 채용 중, 향후 AI, S/W 분야 등의 인력 채용(향후 300여명 규모로 확대)과 국제공동 R&D 등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

** MOU 주요 내용 : ①보잉항공기 최첨단 생산시스템, ②UAM 핵심기술, ③항공우주용 반도체, ④항공우주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분야 상호 협력

이에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제조기술 등의 강국인 한국에서 인력 채용과 공동 연구개발(R&D) 등 투자 확대는 보잉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에는 납기 준수, 기술력 측면 우수 기업들이 많고, 보잉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보잉 협력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보잉이 작년 부산에서 개최한 '보잉납품업체의 날(Boeing Suppliers' Day) 행사' 정기화 등을 제안하고, 산업부는 제반 사항(장소 지원 등) 등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우주항공팀	책임자	팀 장	김봉석 (044-203-4305)
		담당자	서기관	임형남 (044-203-4306)
		담당자	주무관	류재훈 (044-203-43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